노블리스 오블리제

신라 경덕왕 때 왕의 요청으로 충담사가 지었다는 안민가에서도 보듯이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라는 말의 뜻깊은 교훈을 현 시대에도 이어 나가야 한다.
사회 지도층이나 고위 공직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새겨야 할 평범한 진리가 아닌가 싶다.

장밋빛 희망을 갖고 힘찬 도약을 다지며 출발했던 21세기도 벌써 2년이 지났다. 시작할 때는 누구나 새로운 각오로 희망찬 한 해를 다짐하곤 한다.

올해 들어 건설업계는 잘못된 관행과 부실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리고 건전한 건설 문화 정착을 위해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통한 건설 강국을 이루어 내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진철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장
동궁건설(주) 회장

건설업계에 팽배해 있는 부실·부조리를 척결하는 것이나, 외환 위기 이후 IMF의 혹독한 시련과 고통으로 국가적 위기에 처한 것이나, 한 개인이 겪는 어려움이나, 이 모든 난관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다시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노력하는 길이야말로 발전의 첩경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의 상황을 보면 IMF 위기는 잊은 지 오래된 것처럼, 각계 각층이 흥청망청 저마다의 이익만을 위해 윤리도 도덕도 다 팔아버린 듯한 느낌이 든다. 특히 서민들의 졸라맨 허리띠가 더욱 조여드는 어려움 속에서 현격한 빈부의 격차로 삶의 희망을 잃은 사람들은 제 돈이라고 물 쓰듯 써대는 졸부(?)들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분노가 솟구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회 지도층과 소위 나라의 녹으로 청렴하게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직자님(?)네들이 무슨 무슨 게이트니 하는 권력형 비리 등에 연루되어 지면을 얼룩지게 한 사건들을 보면 더 큰 분노가 솟구친다.

각 분야의 사회 지도층과 고위 공직자는 솔선수범하여 규정된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약속된 사회적 도덕적 윤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서양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사회 지도층이나 귀족이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의 의무가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지도층이나 고위 공직자들에게 무조건 의무를 강요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평범한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범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지도층의 자식이라도 군대에 보내고, 높은 직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챙기지 말라는 것이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듯이 위에서부터 솔선수범하여 본분을 지키고 규범을 스스로 지킬 때 맑은 자정의 물결이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제 자신의 안위, 자리를 지키기 위한 이전 투구와 권력형 비리, 금품 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는 위에서부터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이다.

신라 경덕왕 때 왕의 요청으로 충담사가 지었다는 안민가에서도 보듯이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라는 말의 뜻깊은 교훈을 현 시대에도 이어 나가야 한다.

사회 지도층이나 고위 공직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새겨야 할 평범한 진리가 아닌가 싶다. 작금의 우리 사회는 윗물도 아랫물도 도덕 윤리의 부재로 인해 혼란 속에 처해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길은 이보다 더 강도 높은 새로운 특단의 조치가 아니라 이 상황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재발견하여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지켜야 할 도덕과 규범의 영역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던 초심으로 돌아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정당한 이유와 그 일을 통한 자기 성취, 더 나아가 이를 통한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건설인들도 마찬가지이다. 각자 맡은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는 최소한의 윤리와 규범을 지켜야 할 것이다.

치열한 경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기가 맡은 공사에 건설인으로서의 혼을 담은 시공을 했는지, 진정으로 적정 공사비를 주어 국가 백년대계의 건설물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 되짚어 보아야 할 일이다.

그래서 각자 위치에서 최소한의 도덕과 규범에 어긋난 일이 있다면, 되돌리는 노력과 함께 과거의 과실과 오류를 거울삼아 새로운 기술 개발과 성실 시공으로 건설인의 자긍심을 드높이자고 제언해 본다. 건설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 각 분야 계층의 지도층이나 고위 공직자여! 초심으로 돌아가자. 서로 웃는 얼굴로 밝은 사회를 건설해야 할 것 아닌가? CJ